

# 문화센터·전망대·물놀이시설...산책로 58km

## 2023년 광주 민간공원 사업 완료 후 모습은

숲예술원·어린이 놀이터 들어선 곳도 있어  
공원 보존율 최고·초과수의 환수제 도입도

2023년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완료되면 내집 앞 도시공원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까.

광주시는 20년 이상 공원 부지로 묶어놓고도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도시공원 가운데 9곳을 10개 사업지구로 구분해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가 사업 시행자(건설사)들로부터 제안받고 잠정 수용한 계획을 보면, 오는 2023년 사업 완료 후 모습을 드러낼 도시공원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후 내집 앞 공원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록·송암·봉산·일곡·중앙·중외·운암산·산용(운암) 등 9개 도시공원이다. 국공유지·사유지가 혼재했으나, 아파트 부지 외에는 전체 토지 소유권이 광주시로 이관된다.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건설사가 훼손지를 복원하고,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편의시설, 산책로 조성 과정에 개입해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입지 선정 등 전반을 감독한다.

광산구 소촌동 산 48-1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랑공원(29만6000㎡)은 광주경찰청 뒷동산이다. 공원 부지에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면 179개를 갖춘 주차장 2개가 들어선다. 848㎡(약 250평) 규모의 물놀이시설도 건립 예정이다. 이전에 없었던 산책로 5.8km가 생겨난다.

마록공원은 서구 마록동 산 7-1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2만6000여㎡다. 공원 부지에 놀이터(1003㎡), 관리사무소, 화장실 4개, 주차면 198개를 보유한 주차장 1곳이 들어선다. 산책로 3.8km가 생겨나고 공원 곳곳에 벤치 69개가 설치된다.

송암공원(52만4000여㎡)은 송암산단과 광주대 사이 남구 송하동 산 15번지 일원에 위치했다. 공원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연면적 1만9100㎡) 규모 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예정됐다.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면 346개를 확보한 주차장 2곳이 들어선다. 산책로 8.9km가 생기고 곳곳에 벤치 314개가 놓인다.

광산구 산월동 산 22번지 일원 봉산공원(23만5000㎡)에는 지상 10m 높이의 전망대가 들어선다.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주차면 96개)이 설치된다. 훼손지가 복원되고 산책로 4.4km가 새롭게 조성된다. 벤치 51개도 설치된다. 일곡공원(106만6000㎡)에는 도시텃밭, 공원관리사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후의 중외공원 모습.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후의 북구 운암산공원 모습.



무소, 화장실, 주차장(주차면 54면)이 들어선다. 공원 산책로 7.6km가 꾸며진다. 중앙공원 1지구(241만2000㎡)에는 도시정원센터, 캠퍼스, 공원관리사무소 4개, 화장실 건립이 추진된다. 공원에 주차장 10개가 들어서며, 차량 1059대를 주차할 수 있다. 공원 곳곳에 821개의 벤치 설치도 예정됐다.

중앙공원 2지구(59만3000㎡)에는 다랭이마당(3354㎡ 놀이터), 공원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3개(주차면 124면)가 생겨난다. 공원 곳곳에 벤치 53개가 놓인다. 중앙공원 1·2지구에는 산책로 10km가 조성된다.

중외공원(208만2000㎡)에는 숲놀이터, 공원관리사무소, 화장실 3개, 주차장 2개(165면), 벤치 82개가 설치된다. 산책로 12.6km가 조성된다.

운암산공원(36만8000㎡)에는 숲예술원(1224㎡), 화장실, 주차장 2개(73면)가 들어서고, 벤치 69개가 놓인다. 산책로 3.8km가 새롭게 조성된다. 산용(운암) 공원은 운암동 광주기상청 주변 동산으로 전체면적은 6만1000㎡이다. 어린이놀이터(706㎡), 공원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3개(23면), 벤치 23개가 설치된다. 산책로 1.8km도 조성된다.

◇공원보존율 전국 최고·초과수의 공공투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나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거둔 성과가 여럿이라고 설명한다.

첫손에 짚는 것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타 사·도를 압도하는 공원보존율이다.

공원녹지법은 부지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나머지 30% 이하의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허용했다. 광주시의 경우 대상지 9개공원 10개 사업지구 전체면적은 786만8000㎡다. 전체면적의 90.3%는 공원으로, 나머지 9.7% 공간에는 아파트(비공원시설)가 들어선다. 공원 보존율을 90.3%로 끌어올리고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을 9.7%로 대폭 줄인 것이다. 광주시를 제외한 타 사·도의 비공원시설 면적비율(평균)은 21%(공원보존율 79%)다.

전국 최초, 유일의 초과수의 환수제 도입도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만의 장점이다. 사업 완료 후 전문가가 정산을 거쳐 제안사(건설사)가 당초 밝힌 수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을 공원 조성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꾸려 장기미집행공원 추진 방향을 설정한 점도 광주시는 모범 사례로 꼽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쌀값 안정위해 산물벼 8만 시장서 완전 격리해 주세요”

### 전남도, 정부에 건의

전남도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산 공공비축 산물벼 8만을 3월중 시장에서 완전 격리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올 초부터 산지 쌀값이 80kg당 19만원 선을 오르내리다 지난 2월 25일 18만9768원까지 내려가는 등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부진이 계속되면서 수확기까지 쌀값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374만t)이 수요량(376만t)보다 2만t 적어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부 민간 RPC가 태풍 피해배를 정부 매입가 보다 높게 매입해 일반쌀과 혼합 판매한 것이 쌀값하락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

또 국민 1인당 소비량(59.2kg)도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쌀값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최근 도내 11개 농협RPC 관계자와 쌀수급점검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농협 RPC 대표들은 전국 농협이 보유한 원료곡(92만1000t)은 지난해보다 2.7% 적으나 쌀 판매량(37만3000t)도 지난해보다 12.4% 낮은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쌀 가격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지 않을 경우 쌀값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 상반기에 쌀값을 잡지 못하면 수확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쌀값안정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매입한 공공비축 산물벼 8만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완전 격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민간유통업체의 피해배 혼입에 따른 양곡표시기준과 산출연도 조작 등 시장 질서를 왜곡하거나 문란 시키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 동구·광산구 등 4곳

### 10억 보조금 지원

광주시는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동구(학운2구역), 광산구(도산7동, 서동, 용보촌) 등 4곳에 총 10억7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되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 또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곳을 대상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사업 대상은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 구역이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광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은 동구(학운2구역), 광산구(도산7동, 서동, 용보촌)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38억3000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25%)의 사업비를 투입해 토지 및 부지 등 매입 절차를 거쳐 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복지센터설치, 게이트볼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게 된다.

구역별로는 학운2구역과 도산7동은 오는 2021년까지, 서동은 2022년까지, 용보촌은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5억7500만원(국비 70억5000만원, 시비 35억2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4개 구역에 총 43억4000만원(전환사업(국비) 21억5200만원, 시비 10억7600만원, 구비 10억76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광주시는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52곳에 대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한 바 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구 도심지역 주거공간에 편의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추진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제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레거시(유산) 사업인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수영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광주시가 제출해 이달 10~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 심의를 거쳐 예정이다.

재정투자 심의를 통과하면 입지 후보지인 광산구 남부대외도 건립 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490억원(기금 138억원·시비 352억원)으로 건축비 375억원, 설계비 20억원, 감리비 20억원 등이다.

한국수영진흥센터는 연면적 1만2천㎡ 부지에 3층 규모로 국제 규모의 50m 경영풀, 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영법 분석 장비 등 과학적 훈련 시스템을 마련해 우수 지도자의 전문적 훈련 지도로 정상급 엘리트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코로나 자가격리 앱 7일부터 현장 활용

### 하루 2차례 체크 통보

### GPS로 위치정보 확인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오는 7일부터 현장에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해 7일부터 전국의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 앱은 현재 전남공무원이 격리자와 하루 두차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진행

하는 상태 확인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오전과 오후 1차례씩 정해진 시간에 푸시 알림이 울리면 격리자는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한 뒤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면 된다.

전담 공무원은 이를 실시간으로 통보받고 이상이 있으면 적합한 조치에 나선다. 격리자가 증상 체크 결과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따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함께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061)322-6183